

## 유심안락도의 성립과 그 배경

### 유심안락도의 무량수경종요의 승보개편이다

Compilation of the 'Yooshim - anrak - do ' and Its Background

---

저자 (Authors)	고익진 Ik Jin Koh
출처 (Source)	<a href="#">불교학보 13</a> , 1976.12, 153-170(18 pages) <a href="#">BUL GYO HAK BO 13</a> , 1976.12, 153-170(18 pages)
발행처 (Publisher)	<a href="#">동국대학교 불교문화연구원</a> Institute for Buddhist Culture
URL	<a href="http://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Id=NODE06392993">http://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Id=NODE06392993</a>
APA Style	고익진 (1976). 유심안락도의 성립과 그 배경. 불교학보, 13, 153-170
이용정보 (Accessed)	삼성현역사문화관 183.106.106.*** 2021/07/30 10:11 (KST)

---

#### 저작권 안내

DBpia에서 제공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으며, 누리미디어는 각 저작물의 내용을 보증하거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DBpia에서 제공되는 저작물은 DBpia와 구독계약을 체결한 기관소속 이용자 혹은 해당 저작물의 개별 구매자가 비영리적으로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에 위반하여 DBpia에서 제공되는 저작물을 복제, 전송 등의 방법으로 무단 이용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민, 형사상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 Copyright Information

Copyright of all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belongs to the copyright holder(s) and Nurimedia does not guarantee contents of the literary work or assume responsibility for the same. In addition, the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may only be used by the users affiliated to the institutions which executed a subscription agreement with DBpia or the individual purchasers of the literary work(s) for non-commercial purposes. Therefore, any person who illegally uses the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by means of reproduction or transmission shall assume civil and criminal responsibility according to applicable laws and regulations.

# 遊心安樂道の 成立과 그 背景

—遊心安樂道는 無量壽經宗要의 增補改編이다—

高 翊 晋

- I. 遊心安樂道の 問題性
- II. 無量壽經宗要의 轉載·敷衍
- III. 淨土論 其他의 資料
- IV. 遊心安樂道 成立의 背景
- V. 結 語

## I. 遊心安樂道の 問題性

元曉(617~686)의 彌陀淨土關係 著述에서 現存한 것은 兩卷無量壽經宗要 1卷, 佛說阿彌陀經疏 1卷, 遊心安樂道 1卷의 3書이다. 이 중에서 遊心安樂道는 綜合的인 性格을 띠고 있다는 점에서 元曉의 淨土思想을 살피는 데에 있어서 매우 重要視되어 왔다.<sup>1)</sup> 그러나 이 遊心安樂道에는 菩提流支(Bodhiruci)가 唐 神龍 2年(706)에서 先天 2年(713) 사이에<sup>2)</sup> 번역한 大寶積經發勝志樂會, 神龍 3年(707)<sup>3)</sup>에 번역한 不空羼索神變眞言經이 引用되어 있어 問題가 되고 있다.

遊心安樂道에 上記 2書가 引用되어 있음을 年代적인 측면에서 최초로 주의한 사람은 日本의 望月信亨박사인 것 같다. 그는 遊心安樂道에 그 두 經典이 援引되어 있는 것을 보고, “元曉는 先天年中까지는 康存했던 것을 알 수 있다.”<sup>4)</sup>고 말하고 있다. 引用書를 통해 元曉의 生存年代를 推定하고 있는 것이다. 元曉의 生存年代가 未詳하던 當時로서는 당연한 일이라고 하겠다.

그러나 1914年 慶州의 東北 쪽 內東面 暗谷里 ‘止淵’이라는 溪畔에서 ‘誓幢和上塔碑’가 발견되어,<sup>5)</sup> 元曉의 入寂年代가, “垂供二年三月卅日 終於穴寺 春秋七十也”<sup>6)</sup>로 밝혀졌다. 이렇게 되면 上記 2書의 引用은 크게 문제로 되지 않을 수가 없다. 元曉의 著

1) 八百谷孝稿, ‘新羅社會と淨土教’(史淵 Vol. 7 No. 4); 安啓賢稿, ‘元曉의 彌陀淨土往生思想’(歷史學報 第16輯·21輯) 등의 論文은 遊心安樂道에 重點을 두고 있다.

2) 大寶積經 序; 聖月信亨 著, ‘支那淨土教理史’, 東京 法藏館 昭和 17, p. 212.

3) 望月信亨 上掲書 p. 212.

4) 上同.

5) 葛城末治稿, ‘新羅誓幢和尚塔碑に就いて’(靑丘學叢 第5), p. 151.

6) 上同 p. 154.

述로 알려진 遊心安樂道에 著者の 入寂(686)<sup>7)</sup> 후 20여년이 지나 번역된 文獻이 引用되어 있다는 말이 되기 때문이다.

遊心安樂道の 이러한 問題性에 대해 日本의 源弘之씨는, “近年 元曉의 生存年代가 밝혀졌기 때문에 遊心安樂道는 그의 眞撰이 아니라 차라리 後世의 어떤 사람의 假託에 의한 것임이 判明되었다.”<sup>8)</sup>고 말하고 있다. 遊心安樂道를 전체적으로 後人の 假託으로 보려는 것이다. 그리하여 遊心安樂道에서 彌陀淨土와 彌勒兜率天에 대한 優劣難易論이 對立을 止揚하는 方向으로 전개됨을 보고 그러한 淨土信仰의 形態는 中國이나 日本에서는 찾아 보기 어려운 新羅 特有的인 것임을 논하여 그런 점에서, “本書는 朝鮮에서 新羅時代에 成立했다고 推定할 하나의 證左가 되는 것으로 생각된다.”<sup>9)</sup>는 卓見을 발표하고 있다.

그러나 遊心安樂道에는 元曉의 無量壽經宗要和 同一한 부분이 너무나도 많을 뿐만 아니라, 唐 迦才(~648~)의 淨土論과도 同一한 부분이 상당히 많이 발견된다. 이런 점을 통해서 安啓賢교수는, “애초에는 闍那崛多譯 發覺淨心經·不空羂索呪經, 또는 玄奘譯 不空羂索神呪心經 등이 引用되어 있던 곳을 元曉가 示寂한 후에 某人이 某目的으로 某時에 菩提流支譯의 大寶積經發勝志樂會와 不空羂索神變眞言經으로 그 부분을 바꾸어 놓은 것이 아닐까.”<sup>9)</sup>라고 異議를 제기하고 있다. 遊心安樂道를 전체적으로 後人の 假託書라고 하기 보다는 문제성이 있는 부분만을 後人の 換置로 보고자 하는 것이다. 그리하여 그 換置者를 日本의 어떤 密敎僧 또는 淨土僧 또는 遊心安樂道の 解說書인 光明眞言沙勒進記를 쓴 明惠上人(1173~1232)이 아닐까 라고<sup>10)</sup> 추정하고 있다. 그런 다음 遊心安樂道를 여전히 元曉의 眞撰으로 보고 그에 입각해서 그의 淨土思想을 논하고 있다.

遊心安樂道の 著者에 대한 문제는 이리하여 현재 전체적인 假託說과 부분적인 換置說로 갈라져 있는데, 최근에 다시 日本의 惠谷隆戒교수는 安啓賢교수가 제시해 놓은 동일한 論據 위에서 결론은 그와는 달리 遊心安樂道の 僞作說로 이끌어 놓고 있다.<sup>11)</sup>

遊心安樂道の 著者問題는 그 자체로 그치는 것이 아니다. 遊心安樂道는 迦才의 淨土論과 동일한 부분도 상당히 많으므로 만일 그것을 後代의 僞撰으로 본다면, 그러한 부분은 迦才의 淨土論에서 轉載해 온 것이라는 말을 할 수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元曉의 著述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두 가지 해석을 내릴 수가 있을 것이다. 하나는 元曉가 迦才의 영향을 받았다고 생각되는 길이고, 다른 하나는 그와 반대의 경우이다. 遊心安樂道를 元曉의 著述이라고 볼 때 일어나는 이러한 두 가

7) 松林(源)弘之 稿, ‘朝鮮淨土敎の研究’(龍大佛敎文化研究記要 第6集), p. 82 上.

8) 源弘之 稿, ‘新羅淨土敎의特色’(金知見·蔡印幻 共編, ‘新羅佛敎研究’, 東京 山喜房 昭和 48), p. 135.

9) 安啓賢 稿, ‘元曉의 彌陀淨土往生思想’(歷史學報 第16輯), pp. 16~17.

10) 上揭 論文 p. 17.

11) 惠谷隆戒 稿, ‘遊心安樂道는 僞作か’(印度學佛敎學研究 Vol. 23 No. 1), p. 22.

지 해석중에서 日本의 望月信亨박사의 所論은<sup>12)</sup> 元曉가 迦才의 영향을 받았다는 쪽에서 있다. 그러나 安啓賢교수는, “賢首法藏이 그의 華嚴敎學을 樹立함에 있어서 智儼보다는 元曉의 影響을 더 많이 입었던 것처럼 迦才도 遊心安樂道에 의해서 그의 彌陀淨土敎學을 수립한 것으로 볼 수가 있다.”<sup>13)</sup>고 말하고 있다.

이렇게 볼 때 遊心安樂道の 成立에 관한 문제는 元曉나 迦才의 淨土思想을 밝히는 데에 있어서도 무엇보다도 먼저 해결되지 않으면 안 될 중요한 문제라고 하지 않을 수가 없다. 遊心安樂道가 後代의 成立이라면 그에 입각해서 논한 元曉나 迦才의 淨土思想은 修訂되어야 할 것이고, 元曉의 眞撰이라면 元曉와 迦才 사이의 影響 관계가 진지하게 다루어져야 하겠기 때문이다.

이런 뜻에서 本稿는 遊心安樂道の 成立問題를 從來의 諸說을 綜合檢討하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한다. 遊心安樂道를 구성하고 있는 文節들의 出處를 體系的으로 조사하여 그 構成形態와 成立背景 등을 밝히는 데에 焦點을 두고자 한다.

## II. 無量壽經宗要的 轉載・數衍

### 1. 轉載한 部分

遊心安樂道에는 無量壽經宗要和 同一한 부분이 너무나 많으므로 遊心安樂道の 問題性을 해결하려면 먼저 그 2 書를 對照하여 그들의 異同狀況을 정확하게 把握할 필요가 있다. 無量壽經宗要和 遊心安樂道를 科門別로 文節을 갈라 그 異同을 比較하면 다음과 같다. ○표는 相同함을 표시하고, ( )표는 相異함을 표시하며, < >括號 속은 對應關係・出處 등의 註記이다.

#### 無量壽經宗要 (大正 37・125b~131c)

I 大意 ○ 將申兩卷經旨(125頁 b段 26行) … <=遊心安樂道の ㉔部分>

(ㄱ) 但以能說五人之中(125・c・23) …………… <經名說明>

### II 宗致 1 淨土果

1) 淨不淨門 ⊖ 第二簡宗致者(125・c・28) …………… <=㉔>

⊕ 今此經說無量壽國(126・b・9) …………… <=㉔>

2) 有色無色門 ⊖ 次第二明有色無色門者(126・b・27) … <遊心安樂道에 없음>

3) 共不共門 ⊖ 次第三明共不共門者(126・c・29) …………… < “ ” >

4) 漏無漏門 ⊖ 次第四明漏無漏門者(127・b・29) …………… < “ ” >

### 2 淨土因

1) 成辨因 ⊖ 次第二明淨土因者(128・a・23) …………… <楞伽經料簡 引用>

12) 望月信亨 前掲書, 第17章 ‘義湘・元曉・義寂等の淨土論並に十念說’.

13) 安啓賢, 前掲 論文(歷史學報 第16輯), p. 17.

2) 往生因

① 正因    ㉞ 次明往生因者(128·b·5) ..... <=㉞>

② 助因    ㉟ 次明助因(129·a·1) ..... <=㉟>

III 舉人分別

1 三聚衆生    ㊸ 第三約人分別(129·b·9) ..... <=㊸의 廣形>

2 四疑衆生

1) 所疑境界    ㊹ 次明四疑惑衆生(130·a·25) ..... <=㊹>

2) 疑惑相    ㊺ 次明四種疑惑相者(130·b·25) ..... <=㊺>

IV 就文解釋    (없음)

**遊心安樂道** (大正 47·110b~119c)

I 教起宗致    ㊻ 遊心安樂略開七門(110·b·10) ... <=無量壽經宗要의 ㉟部分>

(b) 如是淨土(110·c·8) ..... <一部分은 淨土論 引用>

II 彼土所在    ㊼ 第二定彼土所在者(111·a·15) ..... <出處未詳>

(d) 今將之彼界淨與不淨(111·a·25) ..... <=㊼>

㊽ 言正定等者(111·c·2) ..... <=㊽의 略形>

㊾ 今此經說無量壽國(111·c·26) ..... <=㊾>

III 疑惑患難

1 所疑境    ㊿ 第三明疑惑患難者(112·a·26) ..... <=㊿>

2 對治疑惑相    ㋀ 次明對治疑惑相者(112·b·17) ..... <=㋀>

3 化胎優劣    (i) 後明生彼化胎優劣者(113·b·23) ..... <無量壽經 引用>

IV 往生因

1 正因    ㋁ 第四顯往生因緣者(114·a·9) ..... <=㋁>

2 助因    ㋂ 次明助因(114·c·4) ..... <=㋂>

(l) 或有說言(115·a·16) ..... <大寶積經 引用>

(m) 若觀經中修十六觀(115·b·17) ..... <往生論 引用>

V 往生品數    (n) 第五出往生品數者(115·c·4) ..... <觀無量壽經 引用>

(o) 解云總分九品(117·a·24) ..... <釋淨土群疑論 引用>

(p) 若細別論(117·b·7) ..... <淨土論 引用>

(q) 若依無量壽經(117·b·27) ..... <無量壽經 引用>

(r) 舉要言之(117·c·25) ..... <淨土論 引用>

VI 往生難易

1 二處優劣    (s) 六往生難易(118·a·19) ..... <淨土論 引用>

- 2 往生難易 (t) 後論往生難易(118·b·5) …………… <淨土論 引用>  
 (u) 或說兜率易生(118·b·14) …………… <出處 未詳>
- VII 解妨除疑 (v) 問如攝大乘論釋(118·c·16) …………… <淨土論 引用>  
 (w) 問親遇善緣(119·b·22) …………… <不空羈索經 引用>

위의 對照를 통해서 우리는 遊心安樂道の 前半部(第Ⅰ~Ⅳ까지)는 無量壽經宗要와 大略 相同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 科門의 施設, 字句의 加減, 文節의 配置順 등에 상호 出入이 있긴 하지만 無量壽經宗要에서 第Ⅱ 宗致門중의 有色無色門(㉑), 共不共門(㉒), 漏無漏門(㉓)의 3門을 除外한 나머지 全部가 遊心安樂道の 前半部에서 그대로 발견되는 것이다. 但, ㉑과 ㉓는 甚한 廣略의 차이를 보여 주고 있다.

여기에서 우리는 安啓賢교수가 일찌기 問題를 提起했던 바와 같이, “元曉는 總括적인 遊心安樂道를 먼저 著述한 후에 여기에서 抄하여 無量壽經宗要를 述했는가, 또는 그와 반대로 無量壽經宗要를 補充改編한 것이 遊心安樂道인가.”<sup>14)</sup>하는 문제를 일으킬 수가 있다. 安啓賢교수는 이에 대해 자신의 意見 表明은 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筆者는 그 2書의 相同部分을 조심히 살펴 본 결과 遊心安樂道가 無量壽經宗要의 文을 轉載한 것이라는 흔적을 찾을 수가 있었다.

遊心安樂道가 無量壽經宗要를 轉載했음을 보여 주는 두드러진 例는 遊心安樂道の ㉑文이 ‘今此經說無量壽國……’으로 시작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 곳의 ‘此經’은 말할 것도 없이 無量壽經을 가리키고 있다. 그렇다면 그 ㉑文은 無量壽經宗要의 ㉑文, 즉 ‘今此經說無量壽國……’으로 시작되는 부분을 그대로 轉載한 것임이 뚜렷하다. 왜 그러면 無量壽經宗要는 無量壽經에 대한 宗要를 述한 文獻이므로 그 곳에서는 ‘今此經’이라는 말이 사용될 수가 있다.<sup>15)</sup> 그러나 遊心安樂道는 無量壽經 하나에만 限定된 文獻이 아니라, 書名과 그 內容이 표시하고 있는 바와 같이 彌陀淨土思想에 대한 綜合的인 文獻이므로 無量壽經을 指示하려고 할 경우 그러한 ‘指示代名詞의 語法’을 사용할 수가 없는 것이다. 따라서 ㉑文은 無量壽經宗要의 ㉑文을 그대로 轉載한 것이라고 볼 수 밖에 없다. 轉載의 경우에는 그러한 현상이 발생할 수가 있기 때문이다.

遊心安樂道の 前半部를 이렇게 無量壽經宗要를 그대로 (配列順·廣略 등에 차이가 있긴 하지만) 轉載했다고 본다면, 여기에서 한 가지 疑問이 생긴다. 그것은 無量壽經宗要가 遊心安樂道에 轉載되는 과정에서 무슨 이유로 無量壽經宗要의 (㉑)(㉒)(㉓) 3文은 除外되었을까 하는 점이다.

이에 대한 뚜렷한 理由는 알 수가 없다. 그러나 그러한 割愛의 前轍을 우리는 이미

14) 上同.

15) 그러한 用法은 無量壽經宗要의 “今此經者 蓋是菩薩 ……”(大正 37·125c)에서도 볼 수 있다.

元曉의 阿彌陀經疏에서 엿볼 수가 있다. 阿彌陀經疏의 ‘第Ⅱ 宗致’에는 無量壽經宗要의 ‘第Ⅱ 宗致’ 부분에 대한 略形이 주로 되어 있는데, 그 곳에도 ㉔㉔(淨不淨門)部分은 보이지만, (㉔)(㉔)(㉔)部分은 고스란히 빠져있는 것이다. 다시 그 빠진 부분의 內容을 보면, 自受用土에 色이 있느냐 없느냐(㉔), 依報土는 共果냐 不共果냐(㉔), 諸佛所居의 淨土는 有漏냐 無漏냐(㉔)와 같이 교리적인 淨論을 和解하는 것으로서, 淨土歸入을 勸進하는 데에는 별로 필요가 없는 부분으로 되어 있다. 따라서 그 부분은 無量壽經宗要가 阿彌陀經疏으로 撮要되는 과정에서 除外되었듯이 遊心安樂道에로 轉載되는 과정에서 割愛되었던 것이 아닐까 느껴진다.

## 2. 敷衍된 部分

遊心安樂道에는 無量壽經宗要和 相異한 부분에 經·論의 文章을 아무런 解釋없이 길게 引用하고 있는 곳이 있다. (i)(m)(n) 및 (q)文을 그러한 곳이라고 말할 수가 있다. 이러한 예는 元曉의 다른 著述에서는 찾아 볼 수가 없어 異常한 느낌을 주고 있다. 그런데 그러한 引用文의 內容을 보면, 無量壽經宗要에서 간단히 名目만을 言及한 곳에 대한 該當 經·論의 文을 그대로 引用해 준 모습을 띄고 있다.

먼저 (i)文을 보면, 이것은 ‘第Ⅲ 疑惑患難’의 ‘第3 化胎優劣’을 밝히고 있는 것인데, 만일 佛智를 疑惑不信하면 淨土에 태어나더라도 化生하지 못하고 邊地에 胎生하여 七寶牢獄 속에 갇힌채 5百歲 동안 三寶를 不聞한다는 無量壽經의 經文을 그대로 引用하고 있다. 文尾에 “如來眞言 無合致怪 後悔難追 可不愼哉”라는 짤막한 글을 달고 있을 뿐, 아무런 解釋이 加해져 있지 않는 것이다.

그런데 이 (i)文의 바로 그 앞에는, 다시 말하면 無量壽經宗要和 相同한 부분인 ㉔文에는 佛智(不思議智·不可稱智·大乘廣智·無等無倫最上勝智)를 疑心하지 말 것을 詳說한 다음, 만일 佛智를 의심하면 그 나라에 태어난다고 하더라도,

若人不決如是四疑 雖生彼國而在邊地(中略) 生彼邊地者 別是一類 非九品攝.<sup>16)</sup>  
이라고 하는 바와 같이, “邊地에 胎生하여 九品에 포섭되지 못한다.”는 말을 하고 있다. 上記 (i)文은 바로 이러한 ‘邊地’에 대한 無量壽經의 經文인 것이다.

다음, (m)文은 世親의 往生論(無量壽經優婆塞舍願生偈)중에서 安樂國에 태어나는 行因으로서의 五門(禮拜·讚嘆·作願·觀察·廻向)을 아무런 注釋없이 引用한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런데 이것 또한 無量壽經宗要에서 그 名目이 言及되어 있음을 볼 수가 있다. 즉, 元曉는 無量壽經宗要의 往生因을 밝히는 자리(㉔)에서,

若依觀經說十六觀 往生論中說五門行 今依此經說三輩因.<sup>17)</sup>

이라는 말을 하고, 無量壽經의 經說을 分析하여 그 三輩因을 자세히 설명해 주고 있다.

16) 大正 47 · 113b.

17) 大正 37 · 128b.

그러나 觀經의 十六觀과 往生論의 五門行에 대해서는 그러한 설명을 해 주지 않고, 上揭文에서 보는 바와 같이 단지 그 名目만을 제시해 주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m)文은 이렇게 名目만이 言及된 往生論의 五門에 대한 該當文인 것이다.

더욱 흥미로운 사실은 遊心安樂道에는 다시 上揭 引用文에서 名目만이 言及된 觀經의 十六觀에 대해서도 그 該當 經文을 그대로 실고 있음을 본다. 즉 (n)文이 바로 그곳이다. 그 引用文에서의 순서로 볼 때는 往生論의 五門行보다도 觀經의 十六觀을 먼저 소개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遊心安樂道는,

若觀經中修十六觀 當生彼國 廣如彼說九品之行 次門當述 若往生論明五因行 如彼論云……<sup>18)</sup>

이라고 하여 觀經의 十六觀은 ‘次門’ 즉, ‘第V 往生品數’에서 설하겠다는 말을 하고 있다. 그런 뒤에 위에서 본 바와 같이 往生論의 五門行을 轉載해 주고 觀經의 十六觀에 대한 該當文을 中略의 形態로<sup>19)</sup> 轉載해주고 있는 것이다.

遊心安樂道에서 觀經의 十六觀을 往生論의 五門行 다음으로 순서를 바꾼 까닭은 觀經의 十六觀은 그 곳의 往生品數(九品)까지를 포함하고 있다. 즉 十六觀의 第14觀은 上三品을 설하는 것이며, 第15觀은 中三品을, 第16觀은 下三品을 각각 설하고 있다. 따라서 遊心安樂道는 觀經의 十六觀을 往生論의 五門行 다음에 引用함으로써 往生品數까지를 아울러 제시하고자 했던 것을 看取할 수가 있는 것이다.

遊心安樂道の (q)文은 無量壽經의 三輩를 설하는 經文을 그대로 引用해 주고 있다. 이것 또한 注釋을 보탬이 없이 經文만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上記 (i)(m)(n)文과 同類의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다. 그들과 다른 점은 (i)(m)(n)文이 無量壽經宗要에 名目이 言及되어 있는 데에 대해서, 이 (q)文은 그러한 名目の 言及이 無量壽經宗要에 발견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그러나 (q)文은 遊心安樂道에서의 위치를 볼 때, (n)文과 함께 ‘第V 往生品數’에 속해 있다. 따라서 觀經의 往生品數(九品)를 소개해 준 다음, 無量壽經의 往生品數(三輩)를 또한 계속해서 소개해 준 것임이 뚜렷해지는 것이다.

遊心安樂道에는 (i)(m)(n)(q)文에서 보는 바와 같이 無量壽經宗要에서는 다만 名目만을 言及하고 있는 곳을 그에 해당되는 經·論의 全文을 아무런 解釋을 보탬이 없이 그대로 轉載해 준 곳이 있다. 이러한 부분은 無量壽經宗要의 (m)(n)(s) 3文을 제외한 全文이 그대로 遊心安樂道에 轉載되어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無量壽經宗要에서 名目만을 言及했던 것을 該當 經論의 文을 轉載하여 敷衍해 준 것이라고 볼 수가 있다. 한마디로 말하면 遊心安樂道の 前半部는 無量壽經宗要를 轉載·敷衍한 것으로 이루어져 있다.

18) 大正 47·115b.

19) 初觀에 이르는 導入部(「唯願世尊 爲我廣說無憂惱處 …… 此三種業 過去未來現在三世諸佛淨業正因」)와 第十四觀(上三品) 以下만을 掲載하고 있음.

### Ⅲ. 淨土論 其他의 資料

#### 1. 迦才의 淨土論

遊心安樂道の 問題性은 無量壽經宗要를 轉載·敷衍한 부분보다도 그와 전혀 無關한 相異 部分에 있다. 遊心安樂道の 이러한 相異 部分에 唐 迦才(~648~)의 淨土論과 동일한 部分이 상당히 많이 들어 있어, 일찌기 望月信亨박사는 元曉의 淨土思想에서 迦才의 影響을 論한 바가 있다.<sup>20)</sup> 그러나 遊心安樂道와 淨土論을 대조하여 그들 사이의 相同 部分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분은 安啓賢교수이다. 이것은 遊心安樂道の 成立을 논함에는 매우 重要한 문제이므로 以下 安啓賢교수의 所論<sup>21)</sup>을 중심으로 그러한 곳을 列擧해 보고자 한다.

첫째, 遊心安樂道の (b)文은 그 出處를 정확하게 指示할 수는 없지만, 安啓賢교수가 지적하고 있는 바와 같이, “故起信論云…… 畢竟得生正定聚故”의 文은 淨土論의 ‘第Ⅴ 引聖教爲證’에 同文이 발견되며, 그 뒤의 “有四緣故終不退還…… 穢土由有惡心無記心故退也”의 文은 淨土論 ‘第Ⅰ 定土體性’에 同文이 발견된다.

둘째, 遊心安樂道の (r)文은 淨土論 ‘第Ⅱ 定往生人’의 “舉要言之…… 無受生處故”의 文과 대략 동일하다. 但, 淨土論에서는 “以凡夫墮惡道 故於穢土中 不能修道發心”이라고 한 곳을 遊心安樂道는 그 자리에 淨土論의 “唯言爲未來世一切凡夫 爲煩惱賊之所害者 說清淨業處 勸人往生 不論菩薩”을 引用하여 代替하고 있으며, ‘無樂心故’를 ‘以懸願自在故’로 바꾸고 있음이 重要한 差異이다.

셋째, 遊心安樂道の (s)(t)文은 淨土論의 ‘第Ⅶ 將西方兜率相對校量優劣’의 文을 약간 縮約한 것과 같다. 내용적 차이는 淨土와 兜率天 사이의 十種異에 대해 遊心安樂道는 ‘兜率天界地狹隘’의 項目을 하나 더 보태고 있음이 다르다.

넷째, 遊心安樂道の ‘第Ⅶ 解妨除疑’의 (v)文은 8個의 問答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것 역시 字句의 出入異同이 있긴 하지만 迦才의 淨土論에서 同文을 발견할 수가 있다. 즉, 第1問에서 第6問까지는 淨土論의 ‘第Ⅳ 出道理’의 第2·3·6·7·8·9 問答과 같고, 第7·8問은 淨土論 ‘第Ⅸ 教人欣厭勸進其心’의 第4·5 問과 같다. 그리고 第8問 末尾에 붙인 “又四十八大願 …… 本爲凡夫 非爲菩薩也”는 淨土論 ‘第Ⅳ 出道理’의 ‘次法藏比丘四十八大願……本 爲凡夫非菩薩也’와 같은 것이다.

以上 4개처가 安啓賢교수가 지적하고 있는 곳이다. 그러나 여기에 다시 (p)文을 하나 더 追加해야 한다고 본다. 筆者가 조사한 바로는 淨土論 ‘第Ⅰ 定往生人’의 第6問答 속에 遊心安樂道の (q)文이 다음과 같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20) 望月信亨 前掲書, p. 217.

21) 安啓賢 前掲 論文(歷史學報 16輯), pp. 13~16.

## 遊心安樂道

若細別論 上品上生者 發三種心 則起信論曰 信成就發心位 在十信終心也。生彼便得無生法忍者 是謂緣觀生忍 <以本業經說無生忍在解位故>。上品中生者 位在十信初 此間一劫是彼一日故 經一小劫得無生忍者 謂證理無生忍 則當初地也。上品下生者 是十信以前 信歸三寶受菩薩以去是也 以亦信因果 不誘大乘 但發無上道心。 <故七日之中 唯見佛身 而心不了 三七日後了了見聞者 謂此人未得依業識門而見如來故 三七日後 方入十解 見佛唯從心起故 經三小劫 住歡喜地者 謂彼小劫當此僧祇所以中品 逕一小劫 下品逕三小劫 同入初地者 以勝解行地諸菩薩者 根有利鈍 行亦勤怠故 唯長短異 而功行等 下餘品中准之可知。 > 中三品內 上者是煥頂忍決擇分位也。 中品者 前三方便解脫分也。 下品者 五停以前趣善凡夫。 此三品人並是現般 但以生便半劫分爲三品耳。 下三品者 總是一切趣惡凡夫 造衆惡逆輕重不同 遇緣聞法滅罪 <有成三品更無位別>。

좀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彼此에 약간의 字句出入이 있긴 하지만 遊心安樂道の (P)文은 淨土論의 上揭文을 抄略한 形態를 보여 주고 있다. 그러나 < >括號 속의 글처럼 淨土論에 없는 것을 添加한 곳도 보이는데, 括號 속 文의 出處는 아직 밝히지 못하였다.

遊心安樂道에는 無量壽經宗要와의 相異 部分에 이렇게 迦才의 淨土論과 相同한 곳이 상당히 많이 있다. 이 점을 우리는 어떻게 理解해야 할까. 元曉가 迦才의 影響을 받았다고 볼 것인가 아니면 迦才가 元曉의 影響을 받았다고 볼 것인가. 이 두 가지 可能性 속에서 望月信亨박사의 所論는 前者의 立場에 속한다. 上記 (P)(r)文 등의 說을 소개한 다음, “이들은 主로 迦才의 說을 이은 것으로 생각된다.”<sup>22)</sup>는 말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安啓賢교수는, “遊心安樂道와 같은 부분이 同世代인 迦才의 淨土論에 있다는 것도

## 淨土論

如上品上生人 發三種心 即得往生 …… 如起信論云 信成就發心 在十信終心也。 …… 言至彼得無生法忍者 此是緣觀 得無生法忍也。 …上品中生者 在十信初心。 …言生到彼土經一小劫得無生法忍者 此是緣理 得無生法忍也。 由彼日月長故 經云極樂世界一日一夜 如娑婆世界一劫也。 …… 上品下生者 總是十信前一切趣善凡夫 但能歸依三寶 受菩薩戒已去並是也。 經云亦信因果 不誘大乘 但發無上道心也。 …… 中品上生者 謂是小乘七方便中 後四方方便 謂燻頂忍世第一法位中也。 …… 中品中生者 在五停心觀已去 前三方便中也。 …… 中品下生者 在小乘五停心觀前 受五戒已去 一切趣善凡夫。 …… 若論下輩三品 總是一切起惡凡夫 唯造十惡五逆 乃至用常住僧物。 …… 此等臨終若遇善知識 極發菩提心 …… 若不遇善知識 不能極發菩提心 ……<sup>22)</sup>

22) 大正 47. 87b~88a.

23) 望月信亨 前掲書 pp. 216~217.

疑心될 문제는 아니다. 왜냐 하면 賢首法藏이 그의 華嚴敎學을 樹立함에 있어서 師資關係의 智儼보다도 도리어 元曉의 華嚴經疏·起信論疏·二障義 등에 절대적으로 영향을 입었다는 것을 생각하면 迦才는 遊心安樂道에 의해 그의 彌陀淨土敎學을 樹立시킨 것이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이다.”<sup>24)</sup>라고 말하고 있다. 분명히 후자의 입장에 서있는 것이다.

그러나 筆者에게는 이 두 견해는 다 같이 妥當성이 없는 것 같다. 먼저 元曉가 迦才의 영향을 받았다는 前者의 경우를 생각해 보면, 元曉는 그렇게나 많은 부분을 迦才의 淨土論에서 轉載했다는 말이 된다. 그것도 아무런 典據를 밝힘이 없이. 그러나 이런 일은 出處를 充實히 밝히고 있는 元曉의 著述態度로 봐서 도저히 있을 수가 없을 것 같다. 만일 그런 일이 있었다면 元曉야말로 씻을 수 없는 剽竊者의 허물을 받게 될 것이다. 다음 迦才가 元曉의 영향을 받았다는 後者의 경우를 생각해 보면, 이번에는 그러한 허물이 迦才에게 돌려질 것이다. 따라서 이 두 경우는 다 같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이 없지 않다.

더구나 遊心安樂道에는 그것(遊心安樂道)이 淨土論의 文章을 轉載한 것이라는 뚜렷한 흔적을 보여 주는 곳이 눈에 띈다. 遊心安樂道の (t)文은 西方淨土가 兜率天보다도 일곱 가지 면에서 往生하기 쉬움을 설하고 있는데, 앞서 소개한 바와 같이 이곳은 同文이 淨土論에서 발견되는 부분이다. 그런데 이 西方易生說이, “或說四方易生 兜率難生 七種差別……”이라고 말하는 바와 같이 ‘或說……’이라는 말로 시작되고 있는 것이다. (t)文을 잇는 (u)文은 出處未詳이지만 그와 반대로 兜率이 西方보다도 往生하기 쉽다는 反對 意見과 이 對立을 지양한 折衷說로 이루어져 있다. 그런데 이 두 文章도 다 같이 ‘或說……’이라는 말로 시작되고 있다.

(t)(u)文이 이와 같이 모두 ‘或說……’이라는 말로 시작되고 있다는 것은 西方·兜率의 往生難易論에 대한 세 가지 견해를 소개하고 있다는 말이 된다. (t)文은 迦才의 西方易生說을, (u)文은 出處未詳이지만 그 反對說과 및 折衷說을 각각 소개하고 있는 것이다. 한편, 淨土論의 (t)文 該當處에는 그러한 ‘或說……’이라는 말이 안 보인다. 따라서 (t)文은 迦才의 淨土論을 引用했다는 것이 뚜렷해지는 것이다.

(t)文이 이처럼 淨土論에서 轉載했음이 뚜렷해진다면 (b)(p)(r)(s)(v)文들도 다 같이 淨土論에서 轉載한 것이라는 말이 되는데, 그 轉載를 위에서 살핀 바와 같이 元曉라고 보기는 어렵다. 그렇다면 그를 누구로 보아야 할 것인가. 여기서 우리는 必然的으로 遊心安樂道の 編輯을 元曉 밖에서 찾을 수 밖에 없게 된다.

## 2. 其他의 資料

遊心安樂道에서 無量壽經宗要를 轉載·敷衍했거나, 또는 迦才의 淨土論에서 轉載한

24) 安啓賢 前掲 論文(歷史學報 16輯), p. 17.

부분을 除外하면 (c)(l)(o)(u)(w)부분이 남는다. 이 중에서 (o)文은 懷感撰 釋淨土群疑論 卷 6에 同文이<sup>25)</sup> 발견되므로 그 出處가 확실하다고 말할 수가 있다.

그리고 (c)文은 西方淨土에 대하여 一乘에 의하면 蓮華藏世界에 包攝되고, 三乘에 의하면 法性土·實報土·受用土·變化土의 四土에 通成된다고 설하고 있는 곳인데, 이 四土說은 智儼의 華嚴孔目章 卷4 ‘壽命品內明往生義’<sup>26)</sup>의 說과 비슷한 바가 있다. 따라서 望月信亨박사는 元曉의 이 四土說은 智儼의 影響을 받은 것이라는 말을 하고 있다.<sup>27)</sup> 그러나 惠谷隆成교수는 이러한 四土說은 元曉의 無量壽經宗要에는 없는 說이라고 하여 遊心安樂道를 僞作으로 보는 다섯 가지 疑問點의 하나로 들고 있다.<sup>28)</sup> 다시 말하면 (c)文 또한 智儼의 華嚴孔目章에서 온 것이 아닐까 라고 보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 부분만은 그렇게 볼 수가 없을 것 같다. 智儼의 四土說과 遊心安樂道の 四土說을 比較해보면 완전히 一致하고 있지는 않다. 華嚴孔目章의 該當文에서는 一乘에 의하면 世界海에 包攝되며, 三乘에 의하면 法性土·事淨土·實報土·化淨土에 通成된다고 하여 우선 그 名稱이 서로 다른 것이다. 그러기에 安啓賢교수는, “元曉의 四土說은 成唯識論·攝大乘論 등의 受用佛土說과 其他 諸家の 說을 和合시킨 것.”<sup>29)</sup>이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 같다.

뿐만 아니라 華嚴孔目章의 間接적인 影響은 無量壽經宗要에 設해진 下輩十念說(㉘)에서도 이미 엿보이고 있다. 源弘之교수가 詳論하고 있는 바와 같이<sup>30)</sup> 元曉가 無量壽經宗要에 引用하는 彌勒發問經의 十念은 智儼이 華嚴孔目章<sup>31)</sup>에 引用하는 文과 전혀 一致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c)文의 四土說이 智儼의 四土說과 비슷하다고 해서 그것으로써 遊心安樂道를 後代 編纂의 疑問點의 하나로 본다는 것은 좀 곤란할 듯하다. 그러한 智儼의 影響은 이미 無量壽經宗要에도 나타나 있기 때문이다. (c)文은 혹시 元曉의 逸失해 버린 다른 文獻에서 載載된 것이 아닐런지 모르겠다.

(c)(o)文을 除外한 나머지 (l)(u)(w)文은 현재 그 出處를 밝히지 못하고 있다. 이미 逸失해 버린 文獻에서 引用되었는지, 또는 遊心安樂道の 編纂者가 作製했을 가능성도 없지 않다. 따라서 問題性이 많은 부분이라고 하겠는데, 이 부분은 무엇보다도 먼저 우리에게 遊心安樂道가 後代의 편찬에 속한다는 사실을 결정적으로 證示해 줌이 있다.

우선 問題의 大寶積經發勝志樂會와 不空羅索神變眞言經이 援引되어 있는 곳이 바로 이 出處 未詳의 (l)(w)文이다. 上記 2經이 元曉 示寂 이후의 譯出이라면 두말할 필요도

25) 大正 47·67b.

26) 大正 45·576.

27) 望月信亨 前掲書, p. 214.

28) 惠谷隆成 稿, ‘新羅元曉의 遊心安樂道는 僞作か’ (印度學佛教學研究 Vol. 23 No. 1), p. 22下.

29) 安啓賢 前掲 論文(歷史學報 16), pp. 21~22.

30) 松林弘之 稿, ‘朝鮮淨土敎の研究’ (龍大佛敎文化研究記要 第6集); ‘新羅淨土敎의 特色’ (新羅佛敎研究), p. 一.

31) 大正45·582·C

없이 遊心安樂道는 元曉 이후의 편찬이라는 斷案을 내려도 좋을 것이다. 遊心安樂道の 後半部에는 迦才의 淨土論에서 轉載된 부분이 상당한 量에 이르고 있는데, 그러한 곳은 元曉 이외에서 그 편찬자를 찾을 수 밖에 없음을 앞서 논한 바가 있다. 따라서 上記 2經의 引用은 이제 그에 대한 결정적인 證左로 볼 수 밖에 없다는 말이다.

그러나 安啓賢교수는 이에 대한 異議를 제기하고, 앞서 第I章에서 소개한 바와 같이 애초에는 闍那掘多譯의 發覺淨心經이나 不空索神呪經(또는 玄奘譯의 不空索神呪心經) 등으로 引用되어 있었던것을 後人이 菩提流支譯으로 그 부분을 바꾸어 놓은 것이 아닐까라고 말하고 있다.<sup>32)</sup> 安啓賢교수의 이러한 主張은<sup>33)</sup>그럴 可能性이 전적으로 排除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문제의 (1)文을 자세히 살펴 보면 그렇게 部分的인 換置가 행해졌다고 볼 하등의 근거가 발견되지 않는다.

먼저 大寶積經發勝志樂會가 援引되어 있는 (1)文을 보면, 이것은 그 앞의 ㉞文과 교리적인 對立을 형성하고 있다. ㉞文은 元曉의 無量壽經宗要에서 轉載된 부분인데, 淨土往生의 助因으로서의 下輩十念에는 顯了義와 隱密義의 두 가지가 있다고 하여 그들에게는 다음과 같은 차이가 있다고 말하고 있다.

顯了十念：① 觀經所說 ② 凡夫能發 ③ 望第四對淨土而說

隱密十念：① 彌勒發問經所說 ② 初地以上菩薩能具足 ③ 望第三對純淨土而說

그리하여 無量壽經의 十念은 이러한 隱密·顯了的의 두 뜻을 갖추고 있다고 한다.

여기서 注意해야 할 점은 彌勒發問經의 十念은 隱密義의 十念이라는 점이다. 그런데 바로 그 뒤의 (1)文에서는 彌勒發問經의 十念도 第3 純淨土에 대해서 설하는 것이 아니라 觀經에서와 같이 第4 淨土에 대해서 설하는 것이니, 그 이유는 그 十念이 비록 凡夫念이 아니라고 하지만 十信三賢菩薩들이 닦는 慈悲心 등으로써 十念을 삼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 典據로서 문제의 大寶積經發勝志樂會의 十念說을 들고, ‘發勝志樂會는 彌勒發問經과 同本異譯’이라는 말을 하여, 彌勒所說의 十念은 地上菩薩에 限한 것이 아니라는 말을 덧붙이고 있다. 이것은 분명히 元曉가 앞서 彌勒發問經의 十念은 初地菩薩 이상이라야 具足이 可能하며, 第3 純淨土에 대해 설한 것이라는 말과 대립되는 주장인 것이다.

(1)文의 내용이 이렇게 ㉞文의 내용과 대립되고 있다면 그것을 元曉의 所說이라고는 보기가 어려울 것이다. 著述할 때 그렇게 自家撞着的인 말을 할 까닭이 없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1)文은, ‘或有說言……’이라는 말로 시작되고 있다. 이것은 어떤 한 견해를 소개하는 形態임이 분명하다. 大寶積經이 元曉 示寂 이후의 譯出임을 감안한다면, 그것은 새로 번역한 大寶積經을 典據로 들어 누군가가 元曉의 說에 반대되는 견해를 表明한 것이며, 遊心安樂道の (1)文은 그러한 견해를 소개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32) 安啓賢 前掲 論文(歷史學報 16輯), p. 17.

이렇게 볼 때 安啓賢교수의 部分的인 換置說은 그 성립근거가 인정되지 않는다. 安啓賢교수는 또 換置者를 日本의 明惠上人(1173~1232) 줌으로 생각하고 있지만<sup>33)</sup> 이것 또한 하나의 推定이지 근거가 없음은 물론이다.

(1)文이 이렇게 後代의 편찬임이 밝혀진다면, 大寶積經의 譯者인 菩提流支에 의해 編역된 不空羈索神變眞言經이 引用되어 있는 (w)文도 後代의 것으로 보아 틀림이 없을 것이다. 이 곳은 善緣을 만나지 못하고 이미 惡途에 떨어진 亡靈을 大灌頂光眞言의 加持土沙法으로 極樂에 往生케 하는 密敎儀式을 소개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 安啓賢교수는 이 (1)文에 대해서도 애초에는 闍那堀多譯 不空羈索呪經 등으로 引用되어 있었던 곳을 後人이 菩提流支譯으로 換置한 것이 아닐까 보고 있지만, 우선 그러한 密敎儀式이 (단순한 眞言의 使用이라면 몰라도) 元曉 때 行해지고 있었던가는 자못 疑心스러운 것이다.

끝으로 (u)文은 彌陀淨土와 彌勒兜率天에 대한 往生難易論에서 먼저 迦才의 西方易生論을 소개한 다음, 第2의 견해로서 兜率易生說과 제3의 견해로서 그들의 折衷說을 소개하고 있음은 위에서 言及한 바가 있다. 그런데 이러한 二處優劣·往生難易論은 元曉의 현존 彌陀淨土 관계 저술(無量壽經宗要·阿彌陀經疏)이나 彌勒 관계 저술(彌勒上生經宗要)에서 한 마디도 찾아 볼 수가 없다. 新羅僧의 著述에 그러한 문제가 言及되기 시작한 것은 元曉 이후의 懷輿(無量壽經連義述文贊)이나 義寂 등에서인 것이다. 따라서 이것 또한 遊心安樂道가 後代의 편찬임을 나타내고 있다고 볼 수가 있다.

以上으로써 우리는 遊心安樂道를 우선 後代의 編纂으로 단언해도 좋을 것이다. 元曉의 無量壽經宗要를 根幹으로 하여 여기에 無量壽經·觀無量壽經·往生論 등의 所說과 迦才의 淨土論, 懷輿의 釋淨土群疑論, 其他 出處未詳의 자료들을 모아 一書로 편찬한 것이라는 말이다. 그렇다면 그 편찬은 누구에 의해 어느 때, 어느 곳에서 어떤 목적으로 행해진 것일까.

## VI. 遊心安樂道 成立의 背景

이러한 문제에 중요한 示唆를 주고 있는 것은 遊心安樂道 자체이다. 특히 出處未詳의 (I)(u)(w)등은 중요한 자료가 되고 있다. 이러한 자료를 통해 源弘之교수는 遊心安樂道 成立의 時期와 場所를, “朝鮮에서 新羅時代に 成立한 것으로 보인다.”<sup>34)</sup>는 견해를 발표하고 있다.

이러한 견해를 주장하는 源弘之교수의 論據를 간단히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淨土敎의 信仰形態上으로 볼 때, 彌陀信仰과 彌勒信仰이 서로 對立함이 없이 併行해서

33) 上同.

34) 源弘之稿, ‘新羅淨土敎의 特色’(新羅佛敎研究), p. 315.

발전하는 현상은 中國이나 日本에서는 찾아 볼 수가 없는 新羅淨土敎의 特色이다. 둘째, 敎學上으로 볼 때, 新羅淨土敎에서 展開되는 十念說의 中心課題가 彌勒所問의 十念에 있음을 보며, 往生難易論에 있어서도 迦才·慈恩系의 兩說을 引用하여 그 두 설을 다 같이 破한 다음 因緣에 一任할 것을 논하고 있다. 이런 敎學的 特質은 上記 新羅淨土敎의 信仰形態下에서만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源弘之敎수의 이러한 着眼은 매우 注目할만 하다.

그러나 源弘之敎수가 지적한 이러한 問題點 밖에도 遊必安樂道에는 筆者의 見解로는 新羅僧들 사이의 淨土敎에 관한 論難을 反映하고 있는 점이 많이 있다. 예를 들면, 無量壽經宗要의 ㉔文에는,

二乘種不生者 是說決定種性二乘 非謂不定根性聲聞 爲簡此故名二乘種.<sup>35)</sup>

이라는 말이 있고, 元曉의 阿彌陀經疏에도, “論說二乘種不生 決定種性 不得生故”<sup>36)</sup>라고 되어 있다. 그런데 이것이 遊必安樂道の ㉑文에는,

二乘種不生者 是說決定種性二乘 未入無餘 未發大心 非謂不定根性聲聞 及趣寂性出無餘後 爲簡此故 言二乘種.<sup>37)</sup>

이라고 하여, 點친 部分이 더 增廣되어 있다. 또 無量壽經宗要의 ㉕文에는,

若就得生彼淨土者 定性二乘 即不往生 不定性中三品之人 發大乘心者 皆得生彼.<sup>38)</sup>

라고 되어 있는 곳이, 遊必安樂道の ㉒文에는 그에 대한 略形임에도 不拘하고,

若就得生彼淨土者 定性二乘 則不往生 從無餘後 或可往生 不定性中三品之人 皆發心者 皆得生彼.<sup>39)</sup>

라고 하여 點친 部分이 더 增廣되어 있다. 다시 말하면 無量壽經宗要나 阿彌陀經疏에는 ‘決定種性二乘’은 淨土에 往生할 수 없다고 되어 있는데, 遊心安樂道에는 그러한 定性二乘이라고 해도 無餘涅槃에 든 뒤에는 淨土에 受生할 수 있다는 설이 더 追加되어 있는 것이다.

定性二乘의 淨土往生에 대한 이러한 許容은 이미 慧遠에게서도 엿볼 수가 있는 바이며,<sup>40)</sup> 元曉의 法華經宗要에서도 논해짐이 있다.<sup>41)</sup> 그러나 無量壽經宗要나 阿彌陀經疏에는 그것이 그렇게 뚜렷하게 나타나 있지 않는 것이다. 한편, 元曉보다 조금 뒤인 新羅의 憬興은 定性二乘의 淨土往生을 不許하는 唯識家의 說을 강력하게 固守하고 있다.<sup>42)</sup>

35) 大正 37·126b.

36) 大正 37·348b.

37) 大正 47·112b.

38) 大正 37·130a.

39) 大正 47·111c.

40) 橫超慧日 稿 ‘淨土敎に於ける聲聞思想の發展’(東方學報 10冊之2), p. 69.

41) 大正 35·875b.

42) 安啓賢 前掲 論文(歷史學報 21輯), p. 27.

그런데, 遊心安樂道の 上掲 增文(點친 곳)에는 定性二乘의 淨土往生이 ‘從無餘後 或可往生’이라고 주장되고 있지 않는다. 이것은 憬興의 主張에 대립되는 입장을 다시금 闡明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가 있지 않을까.

그리고 또 無量壽經宗要 ㉔文의 조금 뒤에는,

然鼓音王陀羅尼經云 阿彌陀佛 父名月上轉輪聖王 其母名曰殊勝妙眼等乃至廣說者 是說化佛所居化土 論所說者 是受用土 由是道理 故不相違.<sup>43)</sup>

라는 말이 있다. 世親의 往生論에서 淨土에는 女人이 不生한다는데 鼓音王經에서는 阿彌陀佛에 父母가 있다고 한다. 이것은 모순인듯 하지만 鼓音王經에서 父母가 있다는 것은 ‘化佛이 居하는 化土’에서 하는 말인데, 往生論의 立場은 受用土에서 하는 말이므로 모순이 아니라는 뜻이다. 元曉는 다시 阿彌陀經疏에서는, “聲王經(鼓音王經)의 有父母說은 變化를 가리키는 것이오, 實報女가 아니며, 往生論의 女人不生說은 實女가 없기 때문이라고 한다.”<sup>44)</sup> 그런 다음 聲王經의 有父母說에 대해 阿彌陀佛이 머문 穢土를 나타내는 것으로 보는 견해를 破斥하고 있다.<sup>45)</sup>

그런데 遊心安樂道の ㉔文에는 그 대목이 다음과 같이(點친 곳) 增廣되어 있다.

然鼓音王陀羅尼經曰 阿彌陀佛父名月上轉輪聖王 母名曰殊勝妙眼等 乃至廣說者 或曰 是化佛所居化土 論所說者 是受用土 或說是法門父母 如維摩說 由是道理 故不相違.<sup>46)</sup> 즉, 元曉의 ‘化佛所居化土’說 외에 또 하나의 ‘法門父母說’을 소개하고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阿彌陀佛에 父母가 있다는 것은 維摩經에서 “智度는 母요 方便은 父라.”고 하는 바와 같이 ‘法門父母’를 가리킨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그 두 견해를 다 같이 ‘或說……’이라는 말로 소개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흥미로운 사실은 憬興의 無量壽經連義述文 卷中에는 ‘聲王經 穢土說’은 오히려 두둔되고, ‘聲王經 變化土說’과 ‘法門父母說’은 破斥된 다음, 著者의 새로운 견해가 表明되어 있다.<sup>47)</sup> 이렇게 憬興에 의해서 破斥된 ‘法門父母說’이 遊心安樂道の 增文에 나타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 그것이 누구의 所說인지는 몰라도 遊心安樂道에 의해서 그것이 다시금 提起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을 것이다.<sup>48)</sup>

이렇게 볼 때 遊心安樂道에는 無量壽經宗要와의 相違 부분에서는 말할 필요도 없지만, 無量壽經宗要와의 相同 부분에 있어서도 新羅僧 사이의 淨土教學에 관한 論難을 농후하게 反映하고 있는 것이다. 遊心安樂道の 編纂地를 新羅로 보는 견해는 이런 점

43) 大正 37·126b.

44) 大正 37·348b.

45) 大正 37·348c.

46) 大正 47·112a.

47) 大正 47·63c~64a.

48) 懷感撰, ‘釋淨土群疑論’ 卷 6에는 鼓音王陀羅尼經의 有父母說에 대한 세가지 解釋이 소개되어 있는데 그 第3釋은 憬興의 견해이다(大正 47·63c~64a).

에서 더욱 굳혀지는 것이 아닐까 생각한다.

遊心安樂道가 新羅에서 後人에 의해 編纂되었다면, 그 시기는 대개 언제쯤으로 잡을 수가 있을까. 源弘之교수는 莫然히 新羅時代라고만 말하고 있지만,<sup>49)</sup> 그것을 우리는 좀더 限定시킬 수가 있을 것 같다. 新羅淨土敎學에 있어서 下輩十念說의 展開過程을 보면, 無量壽經宗要에 나타난 元曉의 ‘隱密(彌勒發問經)·顯了(觀經) 二義의 十念’ 說은 그 뒤 法位(7世紀頃)의 ‘一法起十念(稱名)·十法起十念(彌勒發問經)’ 說을 거쳐 憬興(~681~)에 이르러 無量壽經의 十念도 觀經의 十念과 같이 ‘稱名十念’이라는 說로 展開된다.<sup>50)</sup> 이것은 다시 義寂(7~8世紀頃)에 이르러 無量壽經의 十念과 觀經의 十念을 同一視하여 名號를 一稱하면 그 곳에 자연히 彌勒所問의 十念이 具足된다는 소위 ‘豎·橫의 十念’ 說로 발전되는 것이다.<sup>51)</sup>

그런데 遊心安樂道の (1)文에는 大寶積經發勝志樂會를 典據로 들어 彌勒發問의 十念과 觀經의 十念이 同一함을 설하여 地上菩薩 뿐만 아니라 地前菩薩도 彌勒發問의 十念을 닦을 수 있음을 설하고 있다. 이것은 義寂의 ‘豎橫의 十念’ 說과 軌를 함께 하고 있다. 따라서 遊心安樂道 成立의 上限時期를 우리는 義寂(7~8世紀初) 以後로 잡을 수가 있을 것이다.

遊心安樂道の (w)文에는 密敎의 加持法用이 설해지고 있다. 密敎의 背景이 反映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禪의 影響은 遊心安樂道에 전혀 보이지 않는다. 新羅에 禪이 本格的으로 傳來되기는 憲德王 10年(818) 道義(~825)가 西堂智藏의 禪法을 전해 온 때부터라고 할 것이다. 遊心安樂道가 편찬될 무렵 禪法이 행해지고 있었다면 遊心安樂道の 性格으로 봐서 반드시 그 문제가 反映되었을 것이다. 中國에서는 慧日(~748)의 往生淨土集, 道鏡의 求生西方淨土要決 등에 念佛과 禪의 關係가 벌써 문제되고 있는 것이다.<sup>52)</sup> 그러나 遊心安樂道에는 전혀 그런 氣色이 없으므로 遊心安樂道の 成立은 그 下限時期를 禪法傳來(9世紀初) 이전으로 칠 수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되면 遊心安樂道の 成立時期는 義寂(8世紀初) 以後, 禪法 傳來(9世紀初) 以前으로 좀더 限定되는 것이다. 이제, 문제는 그 편찬 동기에 관한 것이다. 도대체 遊心安樂道는 어떤 목적으로 편찬되어 ‘元曉撰’으로 傳해지게 되었을까. 이 문제는 따로 논하지 않더라도 지금까지의 所論으로 自明해지는 바가 있다. 한 마디로 말한다면, 당시의 變遷된 社會에서 元曉의 淨土思想을 再宣揚하여 淨土信仰의 綜合的인 指針書가 되게 하려는 것이 아니었나 생각된다.

遊心安樂道에 無量壽經宗要의 거의 모든 文이 그대로 轉載되어 그 根幹(前半部)을 이

49) 注34 참조

50) 源弘之 稿, ‘新羅淨土敎學의 特色’(新羅佛敎研究), pp. 297~307.

51) 上同.

52) 望月信亨 前掲書, pp. 260~.

두고 있다는 것은, 元曉의 淨土思想을 그대로 繼承하려는 편찬자의 뜻을 나타내고 있다. 無量壽經宗要에 名目만이 言及된 곳을 該當 經論의 文을 찾아 敷衍하고, 迦才의 淨土論, 기타의 자료들을 援用하고 있음은 當時의 시대적 요청에 따라 元曉의 淨土思想을 補完하려는 것으로 볼 수가 있을 것이다. 특히 迦才의 淨土論이 많이 轉載되고 있음은 그런 補完의 경우에도 元曉의 淨土思想을 念頭に 두고 행해졌음이 느껴진다. 왜 그러냐면 淨土思想에 起信論 哲學을 깊이 適用하고 있음은 元曉 밖의 淨土家로는 오직 迦才의 淨土論 뿐이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서는 稿를 달리해서 論하고자 함)

끝으로 遊心安樂道の 書名에 대해서 一言하고 싶다. ‘遊心安樂道’라는 名稱은 曇鸞의 ‘略論安樂淨土義’나 道綽의 ‘安樂集’에서 온 것이 아닐까 하는 의견이 제출된 바가 있다.<sup>53)</sup> ‘安樂’이라는 말이 相通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단순히 書名の 類似性에서 그 由來를 찾기 보다는 遊心安樂道の 전체적인 내용에서 題名을 理解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安樂’이라는 말은 ‘畢竟得生安樂國土’<sup>54)</sup>라고 하는 바와 같이 西方淨土에 대한 異名이다. 元曉의 淨土思想에서 安樂國은 ‘穢土淨國 本來一心’<sup>55)</sup>이라는 성질의 一心淨土이다. 遊心安樂道の ‘心’은 그러한 ‘一心’의 表現일 것이다. ‘遊’는 ‘遊行’한다는 뜻으로, ‘數遊十方佛土’<sup>56)</sup>, ‘三乘聖衆之所遊居’<sup>57)</sup>, ‘凡夫即不得遊於淨土’<sup>58)</sup> 등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다. ‘道’는 종교적 實踐方案을 가리키는 대표적 술어이다. 이러한 개념들로 구성된 ‘遊心安樂道’는 ‘一心淨土(安樂)에 遊行하는 길’이라는 뜻을 표현한다.

이렇게 되면 ‘遊心安樂道’라는 書名은 8世紀初~9世紀初頃 新羅에서 成立된 ‘그 새로운 文獻’에 대한 적절한 命名이라고 할 것이다. 元曉撰 無量壽經宗要의 補完書라고 할만한 이 文獻은 起信論의 一思想에 입각해 있으며 綜合的인 ‘淨土信仰의 書’를 志向하고 있기 때문이다.

## V. 結 語

遊心安樂道에 대해 源弘之교수는 後人の 元曉假託說을 주장하고 惠谷隆戒교수는 僞作說을, 그리고 安啓賢교수는 部分적인 換置說을 주장하고 있지만, 筆者는 以上の 考察을 통해 그들과는 달리 後人에 의한 無量壽經宗要의 ‘增補改篇’으로 보고 싶다. ‘假託’이나 ‘僞作’이라고 할 때는 某人이 새로운 述作을 하여 著者名를 他人으로 했을 경

53) 安啓賢 前掲 論文(歷史學報 16輯), p. 19.

54) 遊心安樂道(大正 47·115b).

55) 無量壽經宗要(大正 37·125c).

56) 上同.

57) 遊心安樂道(大正 47.110c)

58) 同(大正 47.119b)

우이지만 遊心安樂道에는 그러한 僞撰의 文이 발견되지 않는다. 元曉의 無量壽經宗要에서 淨土果 四門중의 色無色門·共不共門·漏無漏門의 三門을 제외한 나머지 全文이 遊心安樂道에 그대로 轉載되어 主軸이 되어 있으며, 부족한 부분에 限해서 餘他の 經·論이나 迦才의 淨土論 등에서 援引補完되어 있을 뿐인 것이다. 그리고 安啓賢교수의 部分的 換置說은 그럴만한 근거가 발견되지 않았다.

遊心安樂道の 成立時期는 그 곳에 彌勒發問의 十念과 觀經의 十念과를 同一視하는 견해가 소개되어 있는 점에서 그 上限時期를 義寂(7~8世紀初)이후로 잡겠으며, 下限時期는 密敎의 背景은 뚜렷하지만 禪法의 影響은 보이지 않는 점에서 禪法 傳來(9世紀初) 이전으로 칠 수가 있을 것 같다. 다시 말하면 8世紀初~9世紀初頃 新羅에서 편찬된 것이라는 말이다.

遊心安樂道는 당시의 新羅社會에서 元曉의 淨土思想을 再宣揚하려는 뜻을 가졌던 것임에 틀림없다. 내용이 元曉著 無量壽經宗要의 轉載·敷衍·補完이라는 형태를 띄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뜻에서 著者는 역시 '元曉'라고 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後代의 改編·補完(相異部分)을 받은 것이라는 점을 忘却해서는 안될 것 같다. 元曉의 淨土思想 研究를 위한 資料論에 있어서 특히 이 점은 銘心해야만 할 것이다.